

KMI 국제물류위클리

2015년 12월 9일 · 제335호
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
총괄 이성우 실장, 감수 길광수 선임연구위원

Contents

| 물류정책 · 사업동향 |

1. 미서부 항만에도 초대형선 투입 본격 시작
2. 2015년 한 해는 전 세계 교통·물류 부문 인수·합병(M&A)의 해
3. 세계 해운업계 컨테이너 화물중량 검증 대비 부족
4. 영국 로얄메일그룹 당일배송서비스 네트워크 확충

| 물류시장동향 |

1. 선사간 M&A 시, 태평양항로 BCO 현물시장 의존도 감안 필요
2. 중국과 모스크바를 잇는 신규 철도 서비스 개시

| 공지사항 |

1. 제10회 해외물류사업 설명회 개최
2. 중소·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





물류정책 · 사업동향

미서부 항만에도 초대형선 투입 본격 시작

- 최근 세계 주요 원양선사들이 아시아-유럽 항로 외에 18,000TEU급 이상의 초대형선 투입을 위한 대안을 모색함에 따라 미서부 항만이 대상항만으로 부각되고 있음
 - 따라서 미서부 항만에의 초대형선 입항이 체선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도 불구하고, 초대형선의 미서부 항만 기항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
 - 이는 초대형선의 지속적 인도에 따른 선박과잉 지속(Over-capacity)과 아시아-유럽의 물동량 증가세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기 때문임
- 이의 일환으로 세계 3대 선사인 CMA-CGM은 18,000TEU급 초대형선의 본격 투입을 위한 최종 결정 이전에 시범 운항을 계획 중임
 - CMA-CGM은 최근 인도한 17,700TEU급 CMA-CGM Benjamin Franklin호를 올해 12월 말에 LA항에 시범적으로 처녀 기항시켜 지속적인 운항 가능성을 평가할 예정임
 - 현재까지 미서부 항만에 입항한 최대 선형은 14,000TEU급이며 평균적으로는 10,000TEU급으로 18,000TEU급과 같은 초대형선이 입항한 실적은 없음
- LA항뿐만 아니라 LB, 시애틀, 타코마, 오클랜드 등 항만도 초대형선 기항에 대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나, 다양한 리스크도 존재함
 - 즉, 초대형선 투입으로 여러 항만을 기항할 수 있는 유럽항로와는 달리 미주항로는 랜드브릿지로 운송되는 물동량이 약 50%에 달해 초대형선 투입 확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
 - 또한, 정시성(Reliability)이 가장 중요한 초대형선 투입 항로에서 미서부 항만의 잠재적인 병목현상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음
- 이와 같이 아시아-유럽항로의 초대형선 투입에 따른 낙수효과(Cascade Effect)로 미서부 항만까지 18,000TEU급 초대형선이 투입되기 시작하면 부산항 등 아시아 주요 항만도 초대형 항만으로의 신속한 전환이 필요함
 - 싱가포르의 이미 Tuas 신항 개발에 착수, 2027년까지 모든 선형의 선박 기항이 가능하며 신속한 하역작업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계획임
 - 따라서 부산항도 초대형화 추세에 맞는 메가 항만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, 신규부두 확충, 항로 증심 등이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

자료 : www.lloydlist.com, 2015.12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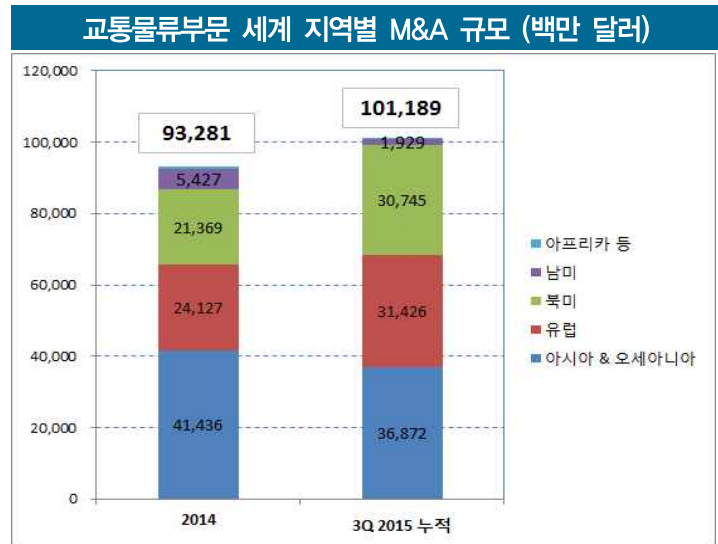
김근섭 부연구위원
051-797-4662, gskim@kmi.re.kr



2015년 한 해는 전 세계 교통물류 부문 인수·합병(M&A)의 해

- PwC에 따르면, 교통·물류 부문의 2015년 3분기 누적 M&A 규모가 금액 기준으로 2014년 실적을 상회했고, 전년 동기대비 40%를 초과했음

- 2015년 3분기 누적 M&A 규모는 1,000억 달러를 넘어 2014년 933억 달러를 상회했음
- 지역별 M&A 규모를 살펴보면, 아시아&오세아니아 지역이 369억 달러로 가장 크고, 그 다음으로 유럽, 북미 등으로 나타남
- 여객 부문을 제외한 운송·물류 부문을 살펴보면, 2015년 3분기 누적 규모가 765.5억 달러, 평균 규모는 9,048만 달러로,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2%와 14%를 초과했음
- 2015년 3분기 실적을 살펴보면, 10억 달러 이상 메가딜(Mega-Deal)은 6건, 183억 달러 규모로 전체의 63%를 차지했고,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GLP의 미국 Industrial Income Trust의 물류부문 인수(45.5억 달러), LB Group(재무적 투자자)의 네덜란드 LeasePlan 인수(40억 달러 이상), UPS의 Coyote 인수(18억 달러) 등이 있음



자료 : PwC(US), *Intersections*, Nov. 2015; KMI 재작성.

교통물류 부문 M&A 규모 (백만 달러)							
	해운	물류	철도	트럭킹	항공여객	육상여객	합계
2014년	26,226	12,007	4,945	23,791	12,735	13,577	93,281
2015년 3분기 누적	20,240	20,811	3,298	32,208	11,296	13,335	101,189

자료 : PwC (US) 홈페이지; KMI 재작성.

- 또한 PwC는 4분기에 해운 분야 등의 인수·합병이 더욱 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
- 2015년 3분기 이전에 FedEx의 TNT Express, GENCO 인수, Japan Post의 Toll Holdings 인수, 일본 Kintetsu의 APL Logistics 인수 등이 진행된 바 있고,
- 4분기에도 해운 부문에서는 CMA-CGM의 NOL 인수 합의 완료 및 중국 국영 선사인 COSCO와 China Shipping의 합병 건이 지속 추진되는 등 M&A는 더욱 활발할 것으로 예상됨

자료 : American Shipper, December 2015, p.16; PwC(US), *Intersections*, Nov. 2015.

김은수 전문연구원
051-797-4665, kes1213@kmi.re.kr



세계 해운업계, 컨테이너 화물중량 검증 대비 부족

- 화주 및 포워더의 상당수가 컨테이너 중량 검증 관련 규정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상황임
 - 국제해사기구(IMO)는 ‘국제해상인명안전에 관한 규칙’ (SOLAS)내 컨테이너 중량 검증에 관한 규정을 2014년에 개정하였고, 2016년 7월 1일에 발효시킬 예정임
 - 이에 화주는 컨테이너 화물중량을 측정한 후 선사 및 터미널 운영사에 제공해야 함
 - 최근 화주와 포워더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, 약 30% 정도만이 내년 7월 1일에 발효될 컨테이너 화물중량 검증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
 - 설문 참여자의 48%는 거래관계에 있는 화주들이 중량 검증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고, 10%는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응답하였음
 - 또 설문 참여자의 66%는 중량 검증 규정의 시행으로 인해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함



자료 : www.joc.com

- 컨테이너 중량 검증 규정의 시행은 관련 업종의 영업방식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
 - 새 규정은 전자 메시지 형태를 요구하기 때문에, 기존에 전화나 팩스를 통해 선적관련 서류를 처리한 회사들의 경우 영업수단의 변화가 필요함
 - 포워더들이 컨테이너를 선적할 선박을 사전에 확보할 경우 중량정보의 부재로 예약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고, 컨테이너 중량 검증 후 선박을 확보할 경우 선박의 운항시간 및 화물적재계획의 어려움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

- 정부는 화물중량 검증의 원활한 국내 도입을 위해 대책을 마련 중에 있음
 - 해양수산부는 새 규정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, 관계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및 관련 협회 및 관련 연구기관 등과 특별전담조직(TF)을 구성하여 검증기준 등을 마련 중에 있음
 - 또한 컨테이너 중량 검증에 대한 이행지침 소개 등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

자료 : www.joc.com, 2015.12.02. / 해양수산부 보도자료, 2015.9.15.

이건우 전문연구원
051-797-4784, gunwoo@kmi.re.kr



영국 로얄메일그룹 당일배송서비스 네트워크 확충

- 영국 로얄메일그룹(Royal Mail Group, 영국 체신공사)은 영국 이쿠리어(eCourier)사를 성공적으로 인수함
 - 이쿠리어사는 영국 런던에 있는 기업으로, 영국전역에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런던을 중심으로 당일배송서비스(Same day delivery)를 제공하는 기업임
 - 이쿠리어사에 대한 성공적인 합병으로 로얄메일그룹의 영국 물류시장내 입지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예상됨
 - 또한 이쿠리어사 인수를 통해 획득한 이쿠리어사의 당일배송서비스에 대한 역량과 노하우는 향후 영국 당일배송서비스시장 내에서 로얄메일그룹의 역할 및 위치를 확고히 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됨

영국 로얄메일(Royal Mail Group)



이쿠리어(eCourier.co.uk)



자료 : www.royalmail.com

- 2015년 기준 영국의 당일배송서비스시장은 약 5억 파운드(GBP, 약 8,774억 원)¹⁾로 추정되며, 매년 4%~5%의 증가율을 보이며 성장 중임
 - 영국의 당일배송서비스시장의 대부분은 B2B 기반의 거래이지만, B2C 전자상거래의 발전 및 보다 빠른 배송을 원하는 고객의 증가로 인해 B2C시장의 규모 역시 급속도로 증가 중임
 - 로얄메일그룹의 모야 그린(Moya Greene) 최고경영자는 이쿠리어사와의 합병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당일배송서비스시장 내에서 로얄그룹의 입지를 확고히 해 줄 것이며, 향후 본 그룹의 신규 전략 목표 수립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힘
 - 로얄메일그룹은 신규 당일배송서비스인 로얄메일 세임데이(Royal Mail Sameday)서비스를 통해 파트너와 협업하여 향후 영국 전역에 당일배송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

자료 : www.transportintelligence.com, 2015.11.24 / www.royalmailgroup.com, 2015.11.18.

고재성 연구원
051-797-4776, joko@kmi.re.kr

1) 1 GBP = 4754.74원, 외환은행(2015.12.4.) 매매기준을 적용.



물류시장동향

선사간 M&A 시, 태평양항로 BCO 현물시장 의존도 감안 필요

- 현재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(SCFI) 스팟운임의 경우 미서부는 \$900/FEU, 미동부는 \$1,700/FEU까지 떨어져 BCO(Beneficial Cargo Owner) 입장에서는 계약선적보다 현물선적이 훨씬 유리한 상황임
 - 그러나 지난 1년간 운임 시장의 변동성이 컸으며, 향후에도 태평양 항로 공급 시장이 불확실하고 내년에도 선사간 인수합병 등이 가시화될 예정임을 감안할 때, 현물운임 시장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예상됨
- 2016년 이후 선사들은 인수합병, 신조선 인도 연기, 운항 개선 등을 통해 공급 조절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, 이러한 노력이 운임에 반영될 수 있음
 - 현물운임 시장에 의존하여 현재와 같은 공급 과잉 상황에서 최대한 운임을 인하여 선적하는 BCO와 NVO(Non-Vessel Operator)들은 상황이 역전될 시 불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
 - 이는 선사 입장에서 선복 부족 시 이러한 화주 물량들을 가장 후순위에 두고 선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

자료 : www.joc.com, 2015.12.01.

김주혜 연구원
051-797-4779, joohye915@kmi.re.kr

중국과 모스크바를 잇는 신규 철도 서비스 개시

- GSC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MANP 터미널은 중국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는 Urumqi에서 화학약품 및 화학제품을 운송할 수 있는 전용열차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보도함
 - 러시아 철도의 자회사인 트랜스컨테이너는 자회사 내에서 운영하는 열차들이 앞으로 40피트 용량의 컨테이너에 플라스틱 생산용 화학 제품들을 운반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함
 - 본 노선은 카자흐스탄을 경유하는데, 통상 8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- MANP 터미널은 최종 고객까지 수송하기 위한 신속한 트럭수송, 컨테이너 적출입 창고, 컨테이너 야적장, 세관을 구비하고 있으며 자체 세관출장소를 Lvovskiy에 두고 있음
- MANP 터미널의 매니저인 Maxim Tyomkin씨는 “MANP 터미널이 새로운 서비스를 맡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” 고 하며 “현재는 운행주기가 수개월로 길지만 해당 지역에서 PVC 제품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그 주기는 짧아질 것” 이라고 언급함



- MANP 터미널은 러시아 내륙지역까지 복합운송서비스를 제공하며 러스콘 자회사에서 운영하는 러시아 태평양 지역의 보스토니치항으로부터 주간 정요일에 복합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
 - 회사는 러시아의 서쪽 출해구인 Novorossiysk와 St. Petersburg까지도 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

자료 : www.transportintelligence.com, 2015.10.21.

김민경 연구원
051-797-4777, mkkim421@kmi.re.kr



제10회 해외물류사업 설명회 개최

한국해양수산개발원(KMI)에서는 아래와 같이 '제10회 해외물류사업 설명회'를 개최 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- 일시 : 2015년 12월 16일(수), 14:00~17:50
- 장소 : 대한상공회의소(서울) 중회의실A(지하 2층)
- 주최 : 해양수산부
- 주관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
- 주요 소개사업
 - 미얀마 씨트웨이(Sittway)항 개발 및 배후단지 조성 사업
 - 터키 국제물류센터 투자사업
 - 한중 FTA 시범도시, 중국 연태시 물류분야 개발 프로젝트
 - 해외 특수물류시장 진출사업
- 참가신청 : 2015년 12월 15일(화) 18:00까지
 - 신청방법
 - 온라인 신청 : <http://www.nelt.or.kr/seminar/view?seq=24>
 - 또는 별첨 신청서를 이메일(jsko@kmi.re.kr)로 송부
- 참가문의 : 고재성 연구원(051-797-4779, joohye915@kmi.re.kr)

※ 본 설명회는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선착순 참가접수를 받을 예정이므로, 관심 기업은 위의 이메일로 반드시 참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- 찾아오시는 길 :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 회관192 (☎ 02-6050-3114)
 - 지하철 2호선 : 시청역 9번 출구 5분거리
 - 지하철 1호선 : 서울역 3번 출구 5분거리
 - 지하철 4호선 : 회현역 5번 출구 5분거리





중소 · 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

한국해양수산개발원(KMI)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는 중소 · 중견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과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● 대상기업

- 「물류정책기본법」에 의한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중소 · 중견기업
- 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% 이상인 기업 포함
 - ※ 중소 · 중견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적용 대상기업

● 대상사업

- 해외 물류시설(물류단지 · 센터 · 창고, 항만 · 복합물류 터미널 등)의 개발투자운영 사업
- 해외 화물운송 및 물류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법인 · 지사 · 사무소 설립 사업
- 상기 관련 M&A 및 기타 해외 물류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

● 지원내용

1.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

- 진출희망 지역 또는 추진하려는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현지 시장정보 및 진출 · 투자 여건 등 기초정보에 대해 단기 컨설팅 지원
- 현지 경제 · 무역 · 인프라 · 물동량 현황, 투자 관련 법 · 제도 등에 관해 기업이 문의 시, KMI가 보유하거나 입수 가능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해당 문의사항 관련 정보 제공
- 컨설팅 결과물은 문서 형태로 제공

2.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

-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해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, 현지 공동조사(KMI 연구진과 물류기업 임직원이 동반)를 수반한 중기 컨설팅 지원
- 필요시 해외투자 유관기관 및 현지 유관기업 관계자와의 상담 주선
 - ※ 현지 공동조사에 수반되는 출장비 등은 KMI와 해당기업이 각자 부담
- 조사 종료 후 공동조사 보고서 제공



- 지원사업별 신청방법

1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

- 신청기간 : 연중 상시 신청
- 신청방법 : '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지원 신청서'(별첨 1)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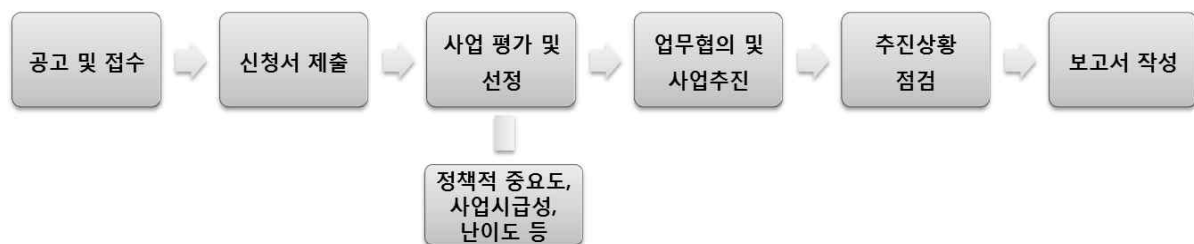
2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

- 신청기간 : 연중 상시 신청
- 신청방법 : '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지원 신청서'(별첨 2)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
 - ※ 담당자 : 김은우 전문연구원(hisgrace@kmi.re.kr), 손보라 연구원(bora62@kmi.re.kr)

- 신청서 평가 및 기타

- 선정기준 : 해당 사업의 실현 가능성·사업성·난이도, 정책적 중요도,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·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·지원
- 선정결과 발표 : 신청서 접수 후 2~3주 이내 개별 통지
- 유의사항 :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등은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기타 사항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(김은우 051-797-4772 / 손보라 051-797-4781)로 문의
 - ※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

- 사업 추진절차





별첨 1

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지원 신청서

업체 개요	기업명		업 종	
	대표자		종업원수	
	소재지			
	자본금		매출액 (전년도)	
	사업자 등록번호		설립일자	
지원요청 내용	국가/지역			
	관련 사업			
	문의사항			
신청자	부서		Tel	
	직위		Fax	
	성명		E-mail	
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2015년 월 일 신청기업 : 대 표 자 : (인)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귀하				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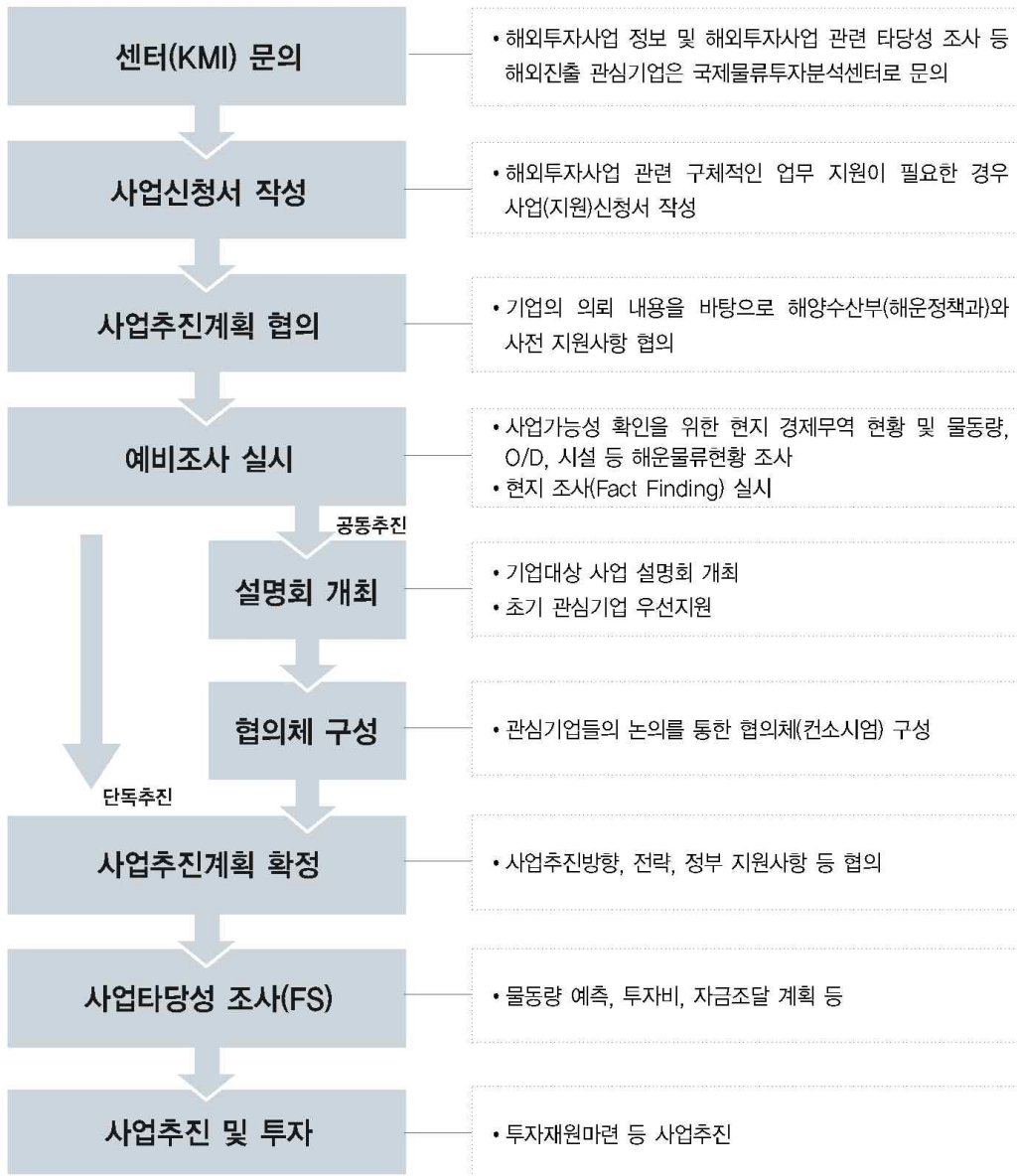
별첨 2

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지원 신청서

업체 개요	기업명		업 종	
	대표자		종업원수	
	소재지			
	자본금		매출액 (전년도)	
	사업자 등록번호		설립일자	
조사대상 사업개요	사업명			
	국가/지역			
※ 별첨 자료요청 (신청기업의 평가를 위하여 공동조사 대상 사업 주요내용을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5~10쪽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 ·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· 사업의 목적 · 사업 세부내용 (대상지, 사업 분야, 사업규모, 사업방식 등) · 사업추진계획 · 현지시장 조사계획 · 기타 현안사항				
지원요청 내용	※ 필요시 별첨 자료로 제출가능			
신청자	부서		Tel	
	직위		Fax	
	성명		E-mail	
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2015년 월 일 신청기업 : 대 표 자 : (인)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귀하				
첨부서류 목 록	※ 공동조사 대상사업 주요내용 및 지원요청 내용 별첨자료			



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



* 기초타당성 조사(실비 부담), 정부간 협상,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